

월식·유성우...볼거리 많은 8월 밤하늘



8일 부분월식 새벽 3시 21분 절정
12~13일 3대 별뿔별 ‘페르세우스’
망원경 없이도 평야서 관측 가능

8월, 달의 일부가 지구에 가려지는 현상에 이어 밤하늘에 수많은 유성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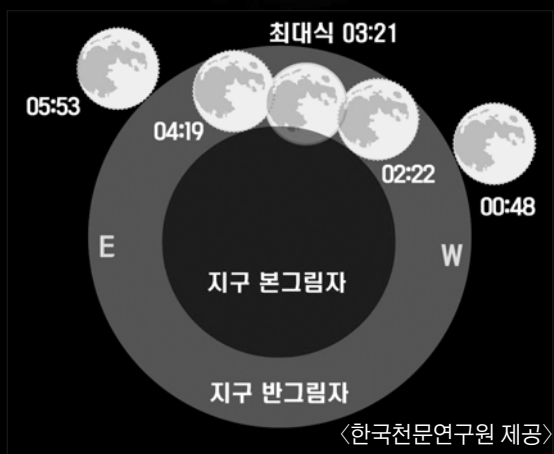
1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8일 달의 일부가 지구에 가려지는 부분월식이 진행된다고 예보했다.

이번 부분월식은 보름달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0시 48분부터 달빛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해 오전 2시 22분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에 의해 가려지면서 시작된다.

이날 오전 3시 21분에 최대가 되며, 오전 4시 19분께 끝난다.

이번 월식은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호주, 오세아니아 등에서 관측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반영식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전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다.

■ 8월8일 부분월식 진행도



월식은 태양·지구·달이 일직선으로 늘어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구에서 보았을 때 달이 태양의 반대편에 위치,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지구의 그림자는 태양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본그림자(본영)와 태양빛이 일부 보이는 반그림자(반영)로 나뉜다.

부분월식은 태양·지구·달이 정확히 일직선으로 늘어서지 않고 약간 어긋나 달의 일부가 지구의 본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이다.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다음 월식은 개기 월식으로, 내년 1월 31일 예정돼 있다.

또 8월12~13일(우리나라 시간)에는 3대 별뿔별로 꼽히는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발생할 전망이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매년 8월 중순 한반도 상공에서 볼 수 있으며 유성우는 ‘유성들이 비처럼 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매년 8월 페르세우스 별자리를 중심으로 유성우가 쏟아진다. 유성우는 지구가 공전도중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나간 자리를 통과할 때 천체 부스러기가 지구 중력에 이끌려 떨어지는 현상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운이 좋으면 한 시간 동안 100개의 유성을 관측할 수도 있다. 유성우를 보기 위해 따로 쟁겨야 할 관측 장치는 없다. ‘어둡고 넓은 장소’와 ‘강한 눈’만 있으면 누구나 유성우가 만들어내는 우주쇼를 즐길 수 있다. 주위에 높은 건물과 산이 없어 사방이 트인 곳이라면 금상첨화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전자파 안전 사용방법’ 영상 공모전

10월13일까지 이메일 접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이하 미래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파 오해와 진실’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 중계기 등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사용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주제이며, 3분 이내 분량의 순수창작 영상으로 제작하면 된다.

공모 접수기간은 10월13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개인 참가 또는 5인 이하의 팀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신청서 서류와 함께 출품작을 이메일(ucc@rap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에 대해서는 영상제작, 전파기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국립전파연구원장상,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 등 총 8점이 선정되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상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6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2017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 행사 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정보전달 목적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홍보자료로 게시된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하여,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무선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생활 속 전파의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본 공모전이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잠시한 아이디어와 표현력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품작에 대해서는 영상제작, 전파기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국립전파연구원장상,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 등 총 8점이 선정되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상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6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2017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 행사 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정보전달 목적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홍보자료로 게시된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하여,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무선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생활 속 전파의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본 공모전이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잠시한 아이디어와 표현력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2030년 도시’는 이런 모습 광주과학관 전시 오늘 개막

국립광주과학관이 3일 오후 2시 국립광주과학관 1층에 위치한 ‘상상홀’에서 ‘2030 미래도시’ 특별전의 개막식을 개최한다.

국립광주과학관이 대구국립과학관, 부산국립과학관과 함께 진행 중인 ‘2030 미래도시’ 특별전은 ‘미래의 집·거리·산업’ 총 3가지로 구성되었으며 ‘로봇, 인공지능, 증강현실,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음성인식’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날 개막식은 홀로그램을 활용한 미디어 쇼와 드론 및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한 융·복합 공연이 펼쳐진다.

제4차 산업혁명이 몰고오는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가정과 도시, 사회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2030 미래도시’ 특별전은 오는 9월17일까지 진행되며 관람료는 6000원이다. 문의 062-960-6210.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2030 미래도시 전시장의 모습.

국립광주과학관제공

우리 가족 방학생활, TV뉴스에 담자

광주시청자센터 수강생 모집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TV뉴스를 제작하고 지역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사진으로 제작해보는 특별한 미디어교육(사진)이 열린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가족TV뉴스 만들기’와 ‘미디어문화탐험대’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가족TV뉴스 만들기’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6팀의 가족을 모집한다. 팀당 참여하는 가족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모집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교육기간은 17일~22일 오전 10시~12시까지 2시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가족TV뉴스 만들기’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TV뉴스를 우리 가족의 이야기로 꾸며볼 수 있다.

가족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을 선 정해 방송뉴스용 대본을 만들고 가족별 뉴스 촬영도 진행한다. 간단한 편집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며 사진으로 제작해보는 특별한 미디어교육(사진)이 열린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가족TV뉴스 만들기’와 ‘미디어문화탐험대’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가족TV뉴스 만들기’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6팀의 가족을 모집한다. 팀당 참여하는 가족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모집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교육기간은 17일~22일 오전 10시~12시까지 2시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가족TV뉴스 만들기’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TV뉴스를 우리 가

가족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을 선 정해 방송뉴스용 대본을 만들고 가족별 뉴스 촬영도 진행한다. 간단한 편집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며 사진으로 제작해보는 특별한 미디어교육(사진)이 열린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가족TV뉴스 만들기’와 ‘미디어문화탐험대’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가족TV뉴스 만들기’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6팀의 가족을 모집한다. 팀당 참여하는 가족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모집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교육기간은 17일~22일 오전 10시~12시까지 2시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가족TV뉴스 만들기’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TV뉴스를 우리 가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h3>부안 숙박시설(모텔)</h3> <p>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p> <p>격포해수욕장, 해변가 5분 대명리조트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 (2개동 룸43개) 월 수익 200만원 가능</p> <p>감정가 16억 매매가 10억 (용 6억 가능)</p> <p>직매 010-7384-7800</p>	<h3>수기동 상가(매매·임대)</h3> <p>20층 중 6층 (45평)</p> <p>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5천만 투자 무료제공 보 1천만, 월 70만 / 즉시 임대 가능</p> <p>1억 6천 → 9천8백 (용 5천)</p> <h3>영광 주택</h3> <p>급매 신축</p> <p>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 깨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p> <p>1억 1천 → 9,800만원 (용 2천)</p> <p>010-6670-9800</p>	<h3>대신경매</h3> <p>입찰부터 ~ 명도까지 건설개발, 리모델링 전문 (사무실) 상무지구 한국은행 맞은편</p> <p>수익성 상가 추천 (기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신안동 (10층 중 4층 상가) 토지 13평, 건 34평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5천2백 동구 수기동 오피스텔 6층 토 6평, 건 24평 ▶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첨단 오피스텔 (10층 중 7층) 토 2평, 건 11.7평 ▶ 감정가 9천2백 → 최저가 6천4백 북구 신용동 (8층 중 5층상가) 토 48평, 건 176평 음식점 프랜차이즈 시설완비, 권리금 없음 ▶ 감정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 북구 양산동 (아파트상가) 토 25평, 건 14평 ▶ 감정가 6천6백 → 최저가 6천6백 북구 오치동 (근린주택) 토 26평, 건 60평 ▶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 상무지구 4층 상가 전용면적 39평, 월세 240이상 ▶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1억9천 <p>반값경매, 특수물건, NPL(다수있음)</p> <p>062-527-7600</p>	<h3>경매교육</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실전문 ▶ 매주 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부터 ~ 실전 입찰까지 실전문자반 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프리특별반 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p>아파트경매물건 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상무지구 상무버들중구 (분양면적 24평) 감정가 1억6,300만 → 최저가 1억1천4백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분양면적 50평) 감정가 4억8,700만 → 최저가 3억4천 광산구 삼월동 첨단 호반리전세빌 (분양면적 35평) 감정가 2억9백 → 최저가 2억9백 <p>010-2699-5300 062-382-5500</p>
--	--	---	---